

## 청렴사회 ‘첫걸음’...농수축산업 ‘뒷걸음’

김영란법 시행 100일 ... ‘정착단계’ 평가 속 소비위축 심각

설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 마련 시급” 목소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5일로 100일을 맞았다. <관련기사 3·15면> 법 시행으로 청렴 의식이 높아지고 정부도 사회규범에 부합하도록 예외 규정을 정비해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소비 부진을 불러오고 농수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수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사회 의식 정착=김영란법 시행으로 우선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됐고, 골프·술 접대 등 과도한 접대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 선생님의 사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품종도 거의 사라졌다는 게 권익위 내부의 진단이다.

◇지역 농수축산업 위축=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배, 화훼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수송까지 가격은 23%, kg당 한우 도매가격은 17%가 각각 하락했다. 식당과 정육점 표본조사 결과 매출액은 각각 22.2%, 17.8% 감소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배(15kg)는 지난 2015년 말 4만 3600원에서 1년 뒤 3만8800만원으로 4800원(11%)이 떨어졌다.

특히 화훼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2015년 말에 비해 공판장의 경매물량은 27%, 거래액은 33% 급감했다. 꽃다발 등은 40%, 난 등 고가품은 47.1%, 화환은 35.5%

조선훈 차기 이사회 선출 갈등 조짐 ▶7면

그림편지-김해성 인도배낭여행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등 소비 하락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수요 추정조사’에서 전남도내 선물 감소 추정 피해액은 745억~870억원에 달한다. 전국 피해액(9569억원)의 7.79~9.0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내 농축어가, 법인 등이 다가올 설

부터 매출 급감을 실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 전복, 과일, 인삼 등 고가 농수축산물의 절반 이상이 명절 시즌에 맞춰 출하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당장 다가올 설부터 농축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의회, 22개 시·군의회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 또는 선물가액 상한 등을 건의하고 소포장재배, 물류비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

남도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상품 개발 등에 나서는 한편 단기적으로 농축어가 및 법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남도는 올해 한우, 과수, 인삼, 전통주, 임산물 등에 27개 사업 312억4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우등록지원 등 계속사업이 20개 263억1800만원, 한우단지조성 등 신규사업이 7개 49억3000만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계란 한 판에 1만3000원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4일 광주 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에 1인당 판매를 제한하는 문구가 걸려 있다. 이 마트는 30개들이 한판 기준 6980원에서 1만3000원선에 판매하고 있다. ▶관련기사 6·15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AI 발생 50일...전남 닭·오리 사육 ‘반토막’

두 달만에 2000만 마리 줄어

122만마리 살처분·보상금 99억

지난 11월 16일 이후 50여 일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도내를 휩쓸면서 닭·오리 사육량이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영암에 이어 4일 나주시 왕곡면 오리농장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하면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전남 닭 사육량은 4932농가 1740만마리, 오리는 292농가 345만7000마리였다.

AI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말 닭은 5226농가 3016만5000마리, 오리는 407농가

971만3000마리였다. 두 달이 채 안 돼 닭과 오리의 사육량이 각각 42.3%, 64.4% 줄어든 것이다. 닭과 오리를 합친 전체 사육량 감소치는 47.7%다.

3일 현재 발생 농가 주변 방역대까지 65농가 122만300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은 99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육 중인 가금류 가운데 계열화 농장에서 자라는 닭·오리는 364농가 1375만 8000마리, 산란계는 224농가 419만5000마리, 개인 농장 사육량은 4768농가 385만 4000마리였다.

살처분 마릿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육량은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전남도가 나주·영암지역 48가구, 정다

운계열 19가구의 오리에 대해 일제검사를 벌인 결과 각각 46가구와 16가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검사 대상이었던 나주시 왕곡면 한 오리농장에서 H5N1형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3km 내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3농가의 5만5000수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닭, 오리 사육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관련 사업의 침체도 우려된다.

AI 확산으로 닭, 오리, 계란 등의 소비도 줄어들고 있지만, 계란 가격이 폭등하는 등 추후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오피니언 새 필진...깊고 다양해집니다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정봉남  
기적의도서관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테마칼럼



고규홍  
칼럼니스트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이덕일  
한가람연구소장



김진애  
전 국회의원

광일춘추



서민  
단국대 교수



정용환  
원자력연구원 단장



신형철  
조선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조발그니  
서산동성당 신부



장현권  
서정교회 목사



원목  
선덕사 주지

광주일보가 2017년을 맞아 필진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된 필진은 독자들에게 폭넓은 사유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월요광장’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정신이었던 나주시 왕곡면 한 오리농장에서 H5N1형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3km 내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3농가의 5만5000수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닭, 오리 사육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관련 사업의 침체도 우려된다.

AI 확산으로 닭, 오리, 계란 등의 소비도 줄어들고 있지만, 계란 가격이 폭등하는 등 추후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 ‘역사의 창’과 김진애 전 국회의원의 ‘이 시대 리더십’은 변함없이 독자들을 만납니다.

전국 5개 지방신문사 공동칼럼인 ‘광일춘추’에는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의 교수와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계속 집필합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와 만나는 ‘종교칼럼’은 장형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사무국장, 조발그니(빈첸시오) 광주 서산동 성당 주임신부, 장현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원목 선덕사 주지가 집필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光州日報社

